

작가노트

박용식

상쾌한 새벽공기와 따사로운 햇살이 전신을 휘어 감는다. 현실을 너무 사랑하기에 미워할 수 없다. 주체할 수 없는 이성애 때론 환각과 망각의 늪에 의지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새벽의 기운은 일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다.

개와 ○○병

날이 밝아 왔다. 일어나 컴퓨터를 켜고 어딘가에 있는 TV리모콘을 찾는다. 어제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본다. 이런저런 사건,사고들이 있었다. 그저 무료함의 한 부분일 뿐이다. 오늘도 난 변함없이 TV라는 상자를 마주보며 하루를 스쳐간다. 갈증이 난다. 길 건너의 편의점으로 들어간다. 냉장고 속의 많은 종류의 음료수를 본다. 술,커피,탄산음료,쥬스,물... 이것들 중 어떤 것이 오늘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다.

개 이야기- 커다란 귀와 귀여운 몸집의 개는 달리고 또 달린다. 매우 지쳤는데, 그래도 남은 힘을 소진하면서 열심히 달린다. 이리저리 나의 시야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다시 사라졌다. 그리고 너무 많이 지쳤는지 쓰러진다.

○○병 이야기- 트럭을 타고 ○○병은 스피드를 즐긴다. ○○를 가득 채우고 또 다른 여행이 시작되고 있다. 그간 수많은 여행. 오늘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커다란 흔들림이 있을 후 트럭은 멈추고, 트럭기사의 도움으로 여행의 여독을 풀려고 시원한 냉장고 속으로 들어간다. 2일 후 ○○병은 어딘지 모르는 곳에 서있다.

개와 ○○병, 각자의 이야기를 갖고 같은 장소에서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의 모습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한마디로 함축하여 말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함께 이해하고 느껴질 수 없는 것들이다. 아니 한편으로는 누구나 동일시 될 수 있다. 어쩌면 나 아닌 누군가가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거대 도시 속의 생활 과 전원 속의 생활은 분명 다른 시각차이를 가지고 있다. 시각의 차이는 시간의 차이로 느껴질 수 있고, 동시대의 시간적 차이 이다. 현실에서 삶의 상황과 상황이 분명 시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와 자연의 시간적 시각적 흐름은 분명 차이가 있고 그러한 경계의 지점은 복잡, 미묘한 차이를 동시에 가진다. 물리적 범위에서 또한 거리의 차이는 인간 문명 혹은 문화의 차이를 가지면서 시간의 격차를 만들어 간다. 각 배경 속에 동일 오브제의 상황은 같지만 다른 미묘한 느낌을 보여준다. 현대의 매체의 생산은 더욱 이런 차이와 같음을 한층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드라마, 영화 등 각 매체의 결과물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 없이 분출 되고 사람들에게 흡수 된다. 일상에서 겪는 모호한 경험과 모호한 조작을 보여줄 뿐이다.